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6. 12

동향분석실

머 리 말

최근 들어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부쩍 둔화되고 있다. 보험산업이 2015년에는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생명보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15년 6.0% 성장하였지만 2016년에는 2.7% 성장에 그치고 2017년에는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생명보험보다 그 속도는 덜한 편이다. 2015년에 4.8% 성장하였고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사이에 생명보험은 4.3%p, 손해보험은 1.9%p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은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에 있다. 저축성보험이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금리 기조의 심화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16년 6월 기존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 심화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보험회사 투자수익 제고를 어렵게 하여 상품판매 유인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금리에 민감한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의 역성장이 전망된다.

향후 보험산업은 금리에 덜 민감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및 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2015년 9.2% 성장하였고, 2016년(7.7%)에 이어 2017년(4.7%)에도 플러스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부분(상해 및 질병 보장)과 대표적 보장성보험인 일반손해보험은 2015년 각각 14.0%, 1.8% 성장하였고 2016년(각각 11.8%, 3.0%)에 이어 2017년(각각 10.0%, 4.2%)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산업 모두에서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을 전망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 관리를

통해 보험회사가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저금리하에서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의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보장성보험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보험산업 전망 / 10

1. 전체 보험산업 / 10
2. 생명보험 / 12
3. 손해보험 / 20

II. 전망 근거 / 31

1. 고령화 / 31
2. 저성장 / 33
3. 저금리 / 36
4. 금융규제 변화 / 37
5. 보험영업 전략 / 40

III. 경영과제 / 42

1. 경영목표 재정립 / 42
2. 금리위험 관리: de-risking 전략 / 44
3. 자본구조 관리 / 45
4. 자산운용 / 47
5. 신수익원 창출 / 50
6. 판매채널 관리 / 53

| 부록 | / 56

■ 표 차례

- 〈표 I -1〉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 10
- 〈표 I -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12
- 〈표 I -3〉 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 22
- 〈표 I -4〉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 24
- 〈표 I -5〉 연금부문 보험료 전망 / 25
- 〈표 I -6〉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 28
- 〈표 I -7〉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 30
- 〈표 II -1〉 보험침투도 전망 / 34
- 〈표 II -2〉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35
- 〈부록 표 1〉 퇴직연금 제외 시 보험료 전망 / 56
- 〈부록 표 2〉 주요기관 환율 전망 / 57
- 〈부록 표 3〉 주요기관 경제성장 전망 / 57

■ 그림 차례

- 〈그림 I-1〉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성장률 / 10
- 〈그림 I-2〉 생명보험 보험료 성장률 / 11
- 〈그림 I-3〉 손해보험 보험료 성장률 / 11
- 〈그림 I-4〉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 11
- 〈그림 I-5〉 손해보험 초회보험료 / 11
- 〈그림 I-6〉 생명보험(퇴직연금 제외)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 13
- 〈그림 I-7〉 종신보험 및 건강보험 증가율 / 14
- 〈그림 I-8〉 보장성보험 증가율 / 14
- 〈그림 I-9〉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15
- 〈그림 I-10〉 초회·계속보험료 / 15
- 〈그림 I-11〉 정기예금 및 공시기준 이율 / 16
- 〈그림 I-12〉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 16
- 〈그림 I-13〉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 증가율 / 17
- 〈그림 I-14〉 저축성보험 증가율 / 17
- 〈그림 I-15〉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18
- 〈그림 I-16〉 초회·계속보험료 / 18
- 〈그림 I-17〉 사업장 규모별 가입률 / 19
- 〈그림 I-18〉 금융업권별 적립금 비중 / 19
- 〈그림 I-19〉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 20
- 〈그림 I-20〉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 24
- 〈그림 I-21〉 초회·계속보험료 / 24
- 〈그림 I-22〉 질병 및 상해 보험료 전망 / 24
- 〈그림 I-23〉 초회·계속보험료 / 24
- 〈그림 I-24〉 저축성보험 보험료 전망 / 24
- 〈그림 I-25〉 초회·계속보험료 / 24
- 〈그림 I-26〉 개인연금 보험료 전망 / 26
- 〈그림 I-27〉 초회·계속보험료 / 26
- 〈그림 I-28〉 퇴직연금 보험료 전망 / 27

■ 그림 차례

- 〈그림 I -29〉 초회·계속보험료 / 27
- 〈그림 I -30〉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 28
- 〈그림 I -31〉 차량대수 및 대당보험료 증가 / 28
- 〈그림 I -32〉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 30
- 〈그림 I -33〉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 30
- 〈그림 II -1〉 고령화 추이: 노년부양비율 / 32
- 〈그림 II -2〉 생산가능인구 감소 / 32
- 〈그림 II -3〉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 33
- 〈그림 II -4〉 잠재 경제성장률 전망 / 33
- 〈그림 II -5〉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36
- 〈그림 II -6〉 생명보험 적립이율 / 37
- 〈그림 II -7〉 손해보험 적립이율 / 37
- 〈그림 II -8〉 금융규제환경의 변화와 영향 / 38
- 〈그림 II -9〉 보장성보험 위주의 영업전략 / 40
- 〈그림 II -10〉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비중 / 41
- 〈부록 그림 1〉미 Fed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 56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7

This report provides growth projections fo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2017, bases for the projections and recommendation of corporate strategy amid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and financial regulations.

In 2017, industry-level premium income is expected to grow by 2.2%, which is 1.0%p lower than 2016. To be specific, the premium income of 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by 1.7%, which is 1.0%p lower than 2016 thanks to the steady growth in protection-type insurance, while the premium income of non-life insurance will increase by 2.9%, which is 0.9%p lower than 2016 mainly due to the growth in auto insurance.

The bases of the projection are population aging, low economic growth and low interest rates, changes in financial regulation and corporate strategy. Population aging can be both risk and opportunity for the insurance industry a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can increase the insurance demands although the exposure to longevity risk becomes bigger. Prolonged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due to low economic growth adversely affects the investment profits of insurers. And the strengthening financial regula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uch as IFRS 17 and the advent of new solvency regulation require insurers to adjust their corporate strategy and goals.

Insurers are required to focus more on long-term corporate values rather than short term profits and align their evaluation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senior managements to long-term values of the company. In order to achieve the new strategic goals, insurers should focus more on managing risks, capital and expenses to drive the corporate values up.

Specifically, we suggest de-risking by introduction of fees for the guaranty of minimum interest rates, management of capital structure in new market-price accounting system that will reduce capital, LDI considering returns as well as risks amid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and FDI for better returns abroad, new profit sources such as financial advice for the affluent and compensation scheme for used car market and new channel strategy linking customers, products and channels to better serve the market segments refined in terms of income and assets of customers.

요 약

I. 보험산업 전망

1. 전체 보험산업

- 2016년 보험산업 보험료 수익은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명보험은 2.7%, 손해보험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생명보험은 1.7%, 손해보험은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은 역성장하는 반면 보장성보험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2. 생명보험

-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존보장을 강화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유병자 및 고령자 건강보험의 호조세에 힘입어 7.7% 증가가 예상됨.
 -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연금보험 부진이 계속되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11.6%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저성장으로 2016년에 비해 1.0%p 하락한 1.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전략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계속되어 역성장(-1.2%)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 신규 수요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5.8% 증가가 전망됨.

3. 손해보험

-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 부문 및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세로 인해 전년대비 1.0%p 감소한 3.8% 성장이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정책, 의료비 보장 관련 신규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장기상해·질병보험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위축으로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신규수요가 위축되며 성장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퇴직연금에 대한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으로 역성장(-1.0%)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 및 대물담보 보장 금액 확대 등에 따라 11.0%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3.0%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연금 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부진으로 인해 2016년 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이 계속해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높은 의료수요와 보험니즈 변화 및 보험료 현실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9% 증가할 전망이다.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 부담 및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1.1% 감소할 전망이다.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의 보험료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 증가와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 요율 인상 효과에 힘입어 4.8%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II. 전망 근거

1. 고령화

-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데 우선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고령자 의료비보장 필요성 증가로 이어져 보험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보험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기대여명 증가로 연금상품 설계 시 예상했던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간 차이가 커짐에 따라 장수위험에의 노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2. 저성장

- 국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을 2017년 3.0%, 2020년 3.0%로 전망하였으며, OECD는 2060년 잠재성장률을 1.3%로 전망함.
- 2017년 세계경제는 2016년 대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중국의 경제 둔화 및 과다부채 등 위험요인이 잠복하고 있는 상태임.

3. 저금리

- 저금리에 따른 금리역마진으로 인해 적립이율 대비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이 예상됨.
 - 특히 확정형 고금리 상품 및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하여 판매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저금리 지속과 더불어 IFRS17이 도입될 경우 저축성보험이 보험회사 부채로 편입되고 이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대한 판매유인이 약화됨.

4. 금융규제 변화

- 최근 금융규제환경 변화로 보험료 수입 확대와 수익 창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규제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영업전략 변화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함.
 - IFRS17 도입(현재 2021년 도입 예정)으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방법과 손익 인식 체계가 변경될 것임.

-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시행시기 미정)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보험상품 가격 및 개발의 자율성 제고와 자산운용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음.

5. 보험영업 전략

- 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영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변동성 축소를 위해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임.

Ⅲ. 경영과제

1. 경영목표 재정립

- 경영목표를 현재 단기손익 중심에서 장기손익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경영자의 성과 평가와 보상체계도 이와 연동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경영진의 경영성과는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 증가분을 통해 측정하고, 이러한 성과지표에 보상체계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2. 금리위험 관리: de-risking 전략

- 현재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 우려로 저축성보험의 상품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나 노후소득보장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과 등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공급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최저보증이율 보장에 따른 금리위험을 파생상품 활용 등을 통해 헤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저보증이율 보증수수료 부과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자본구조 관리

-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가용자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가용자본의 부족분은 할인율, 가용자본의 인정범위, 요구자본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요구자본 관리 능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본을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음.

4. 자산운용

가. 부채연계투자전략(LDI)

- 뉴노멀 시대에는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금리위험 관리와 더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전략이 요구됨.
- 따라서 부채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중시하되 수익성을 제고하는 부채연계 투자전략(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LDI 체계의 핵심은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체제를 토대로 목표 스프레드(target spread)를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음.
- ALM 체제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가치 창출로서의 준비금 관리 수단을 의미하는데, 보험부채의 재무위험(특히, 금리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반면, 목표 스프레드 수준은 대주주의 위험인수 성향과 자본금 수준에 의해 결정됨.

나. 해외투자전략

- 보험회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거와 달리 KP(Korean Paper) 이외의 외화채권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임.
- 이 때 보험회사는 다양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외투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sovereign risk), 신용위험, 환위험 등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와 양을 증가시키므로, 보험회사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아울러 환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투자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신수익원 창출

가. 수수료 확대

- 저금리하에서 보험회사의 수익원 확보를 위해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 부유층 등에 대한 유료투자자문사업 도입을 통한 자문 수수료 확보가 가능할 것임.
 - 장기적으로 후취형 변액상품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수수료 확대도 필요함.
- 보험회사가 유료투자자문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지원과 소비자 인식전환이 필요함.
- 후취형 변액보험은 조기해지 발생 시 사업비 미회수 위험이 존재하여 생명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관리 능력 제고가 요구됨.

나. 중고자동차 수리비보상보험

- 중고차 판매자의 수리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5년 기준 367만 대로 신차 거래량의 2배에 달함.
- 중고차 판매자의 수리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시, 보험회사가 성능상태 점검 업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같이 고려하여 효과적인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6. 판매채널 관리

-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속과 비전속 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채널전략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수요층의 니즈 변화와 채널 간 경쟁 가속화로 인해 향후 전속 설계사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전속 설계사 조직의 고능률화가 필요함.

- 비전속 채널의 경우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향후 높은 성장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규제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및 기타 비대면 채널 등과 융합된 채널 포트폴리오 확립이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향후 채널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C-P-C(Customer-Product-Channel) 전략에 따라 고객과 주력상품 및 해당 채널 간의 유기적 연관성과 특성화된 고객 군별 맞춤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음.

I. 보험산업 전망

1. 전체 보험산업

- 2016년 보험산업 보험료 수익은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명보험은 2.7%, 손해보험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생명보험은 1.7%, 손해보험은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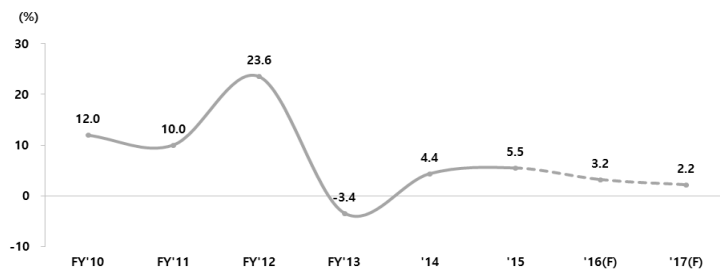
〈표 I-1〉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전체 보험산업	187.2	4.4	197.5	5.5	203.7	3.2	208.2	2.2
생명보험	110.6	1.9	117.2	6.0	120.4	2.7	122.5	1.7
손해보험	76.6	8.3	80.2	4.8	83.3	3.8	85.7	2.9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그림 I-1〉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성장률



자료: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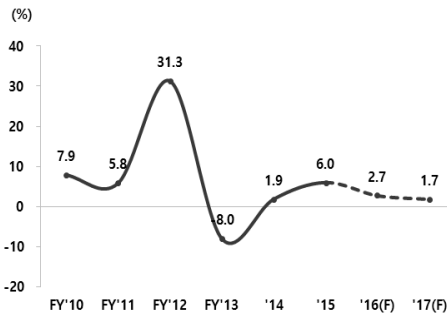
■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과 연금 부문의 역성장이 전망됨.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소비자 수요가 위축되고 보험회사 수익성 제고가 어려워져 상품 판매 유인이 떨어짐.

■ 반면 보장성보험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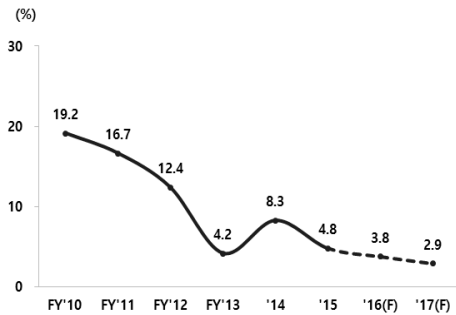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아 수익성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그림 I-2〉 생명보험 보험료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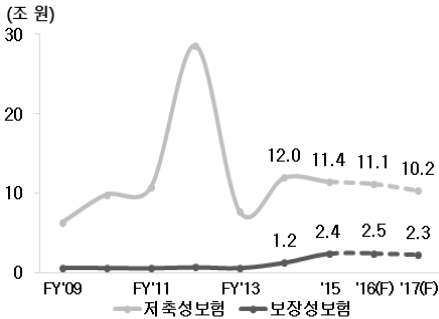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3〉 손해보험 보험료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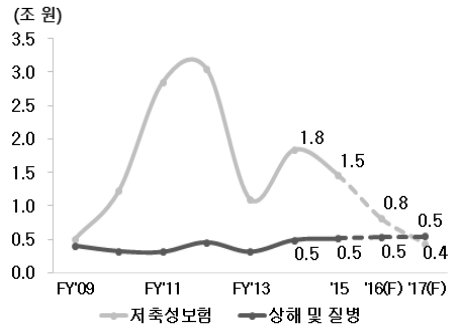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4〉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5〉 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개관

-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장성보험은 생존보장을 강화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유병자 및 고령자 건강보험의 호조세에 힘입어 7.7% 증가가 예상됨.
 -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으로 연금보험 부진이 계속되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은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11.6%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저성장으로 2016년에 비해 1.0%p 하락한 1.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전략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계속되어 역성장(-1.2%)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 신규 수요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5.8% 증가가 전망됨.

〈표 I -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4		2015		2016(F) ¹⁾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05,753	1.9	1,172,137	6.0	1,204,279	2.7	1,224,952	1.7
보장성보험 ²⁾	346,027	5.1	377,794	9.2	406,878	7.7	426,094	4.7
저축성보험 ³⁾	633,355	-5.0	649,618	2.6	636,765	-2.0	629,303	-1.2
퇴직연금	118,221	45.4	136,990	15.9	152,929	11.6	161,806	5.8
기타 ⁴⁾	8,150	-2.5	7,735	-5.1	7,707	-0.4	7,748	0.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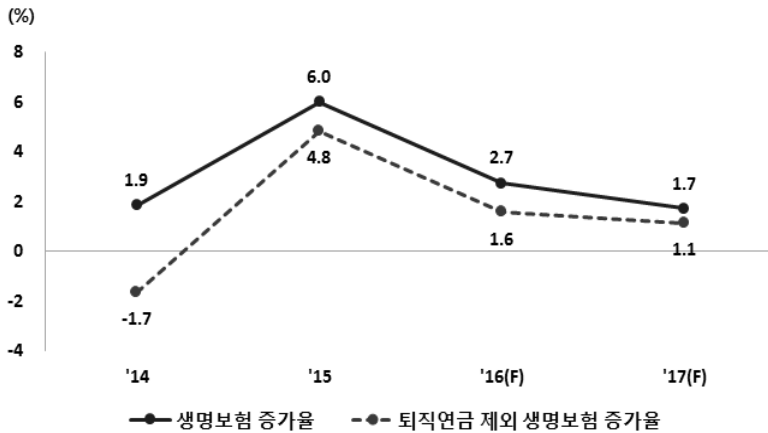
3) 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이 포함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퇴직연금을 제외¹⁾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6년에는 1.6%, 2017년에는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6〉 생명보험(퇴직연금 제외)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²⁾

- 2016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과 유병자 및 고령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신규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7.7% 증가가 예상됨.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015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데 이어, 2016년 1/4분기와 2/4분기에도 각각 11.4%, 19.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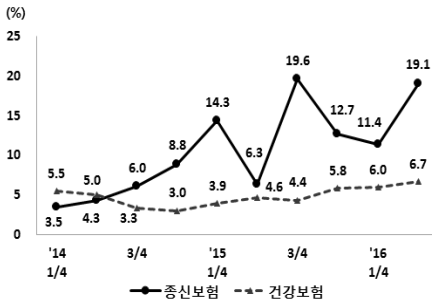
－ 저금리로 연금보험의 판매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생존보장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 판매가 늘어남.

1) 퇴직연금의 경우 계절 효과가 크고 각 회사의 판매 전략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전망의 불확실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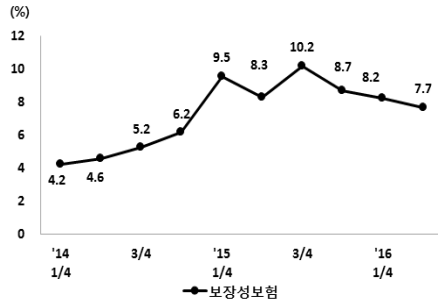
- 건강보험³⁾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4년 하반기 3%대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유병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심사 건강보험 상품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2016년 2/4분기 6.7%까지 상승함.

〈그림 I-7〉 종신보험 및 건강보험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8〉 보장성보험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보장성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전략은 지속될 것이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최근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6년 (7.7%)에 비해 둔화된 4.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과 증저가형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상품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예정이율 인하⁴⁾에 따른 보장성보험 보험료 상승으로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신규 판매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이나, 저금리 환경에서 생명보험 회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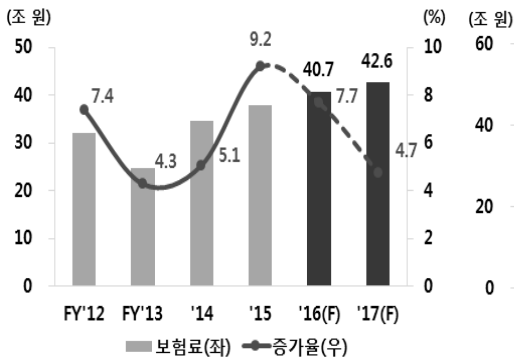
- 그러나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에 대한 영업 관행 개선 조치로 인해 그동안 호조세를 보여 왔던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신규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3) 질병 및 건강을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함.

4)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들은 2016년 4월과 10월 예정이율을 인하하였으며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인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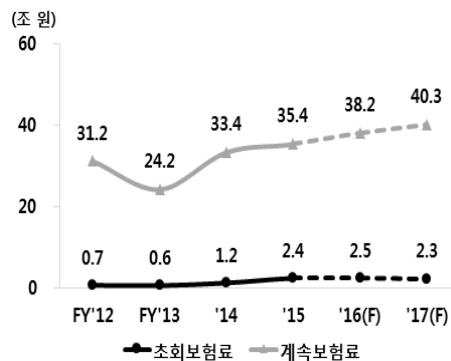
- 2017년부터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할 예정임.⁵⁾
- 건강보험의 경우 손해를 우려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고, 갱신 보험료 수입 확대와 보험료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 방향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음.
- 다만, 이미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림 I-9〉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10〉 초회·계속보험료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금감원 보도자료(2016. 9. 20) 참조.

다. 저축성보험⁶⁾

■ 201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경쟁력 약화에 따른 연금보험 판매 부진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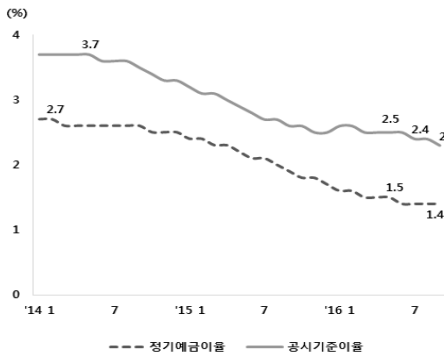
○ 생존보험⁷⁾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 하락세와 금리리스크 부담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5년 4/4분기 이후 역성장을 계속하고 있음.

○ 생사혼합보험⁸⁾의 경우 상반기 일부 회사의 판매 확대 전략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최저보증이율 하락과 확대 전략을 추진하던 일부 회사의 전략 수정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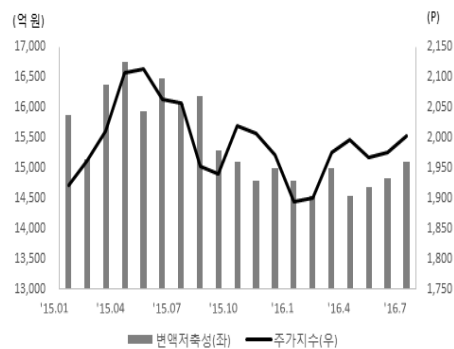
– 일부 회사가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함에 따라 단기납 상품의 신규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음.

○ 변액저축성보험⁹⁾의 경우 변액연금 감소세와 변액유니버설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그림 I-11〉 정기예금 및 공시기준 이율 〈그림 I-12〉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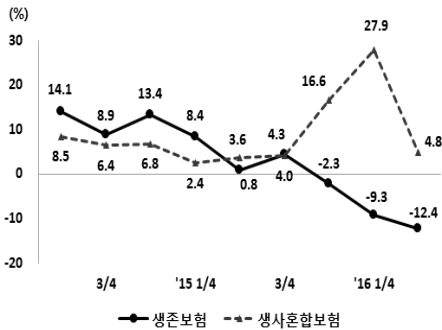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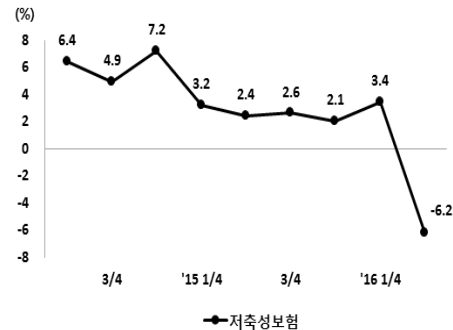
- 6)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 7) 일반연금(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 상품)과 개인연금(「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 상품)을 포함함.
- 8) 보험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과 생존에 따른 보장을 모두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함.
- 9)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그림 I-13〉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14〉 저축성보험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2% 감소가 전망되며, 저금리로 보험 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확대되는 등 공급측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생존보험의 경우 저축 여력 개선 여지가 크지 않고 연금보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제혜택과 관련한 특별한 제도 변화도 예상되는 바가 없어 저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최근 발표된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에 대한 영업 관행 개선 조치¹⁰⁾로 인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연금보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고령화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고 계속된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신규 판매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일부 회사들이 추진하였던 단기납 중심의 저축성보험 확대 전략이 자산운용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큰 폭의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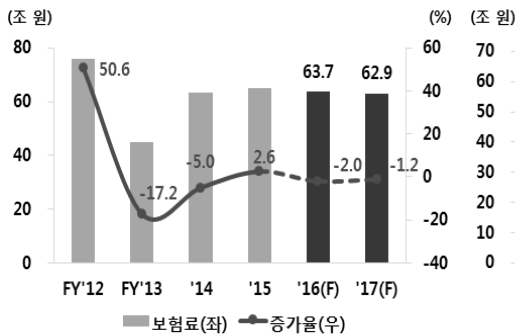
10) 금감원은 2017년부터 보험회사의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힘(금감원 보도자료 2016. 9. 20).

－ 한편, 금융당국이 저축성보험 원금 보장 시점을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납 저축성보험 판매 시 보험회사의 사업비 부담은 확대될 것임.

○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리 위험이 큰 저축성보험 판매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저축성보험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융통성 있는 자금 운용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설의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전체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15〉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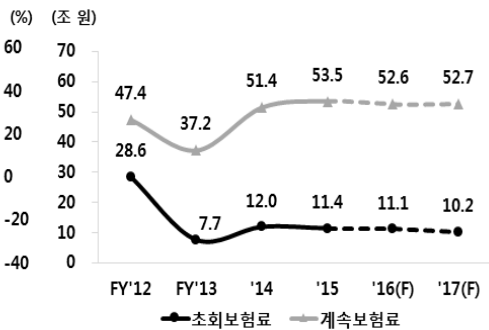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16〉 초회·계속보험료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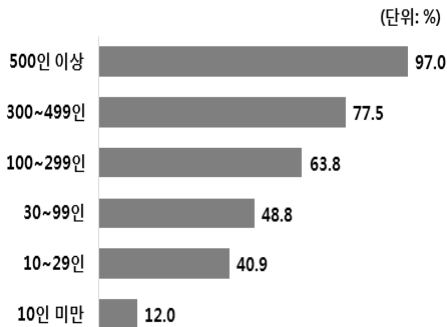
■ 2016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가 예상됨.

○ 퇴직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¹¹⁾ 비율 단계적 상향¹²⁾ 조정,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한 300만 원의 세액공제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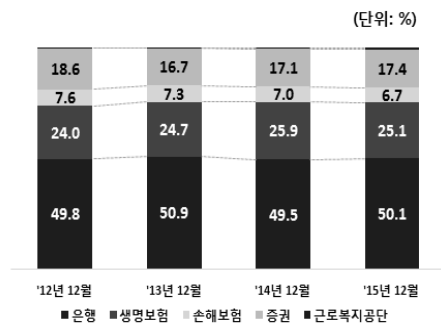
○ 그러나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 등의 영향으로 신규 판매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17〉 사업장 규모별 가입률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18〉 금융업권별 적립금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 2017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체 퇴직연금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의 신규 판매 확대 유인이 약화되고 있어 5.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단계적인 퇴직연금 의무 가입¹³⁾ 추진, 60세 정년제 도입¹⁴⁾ 추진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주요한 판매 대상인 대기업 대부분의 가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규 판매를 확대해야 하나 금융업권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워 보임.

– 은행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 증권회사는 실적배당형 상품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큼.

1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책임준비금의 소정 비율 이상을 매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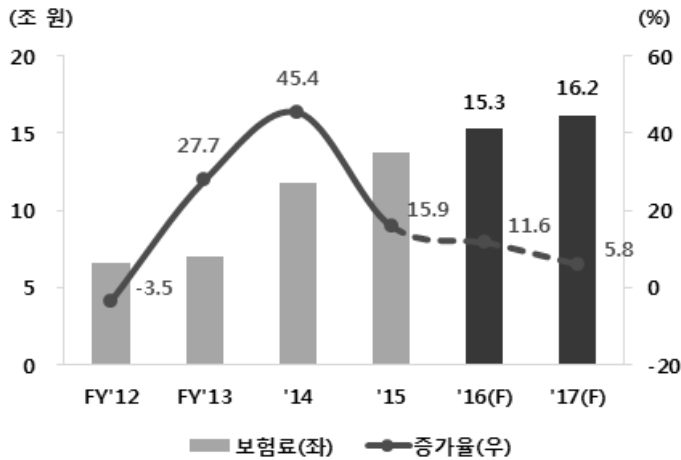
12) 최소적립비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70%에서 80%로,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됨.

13)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음.

14)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6년부터, 그 외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으로 유입되는 보험료 규모가 은행과 증권회사에 비하여 크지 않음.
- 경기침체 지속 및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도 신규 수요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I-19〉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개관

-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 부문 및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세로 인해 전년대비 1.0%p 감소한 3.8% 성장이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정책, 의료비 보장 관련 신규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장기상해·질병보험의 증가세에도 불구

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위축으로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신규수요가 위축되며 성장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퇴직연금에 대한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으로 역성장(-1.0%)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 및 대물담보 보장금액 확대 등에 따라 11.0%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3.0%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연금 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부진으로 인해 2016년 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위축이 계속해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높은 의료수요와 보험니즈 변화 및 보험료 현실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 부담 및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1.1% 감소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의 보험료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 증가와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 요율 인상 효과에 힘입어 4.8%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76.6	8.3	80.2	4.8	83.3	3.8	85.7	2.9
장기손해보험	44.4	6.1	46.6	4.9	47.8	2.6	49.2	2.9
연금부문	10.5	34.2	10.4	-0.9	10.3	-1.0	10.2	-1.1
자동차보험	13.6	5.2	15.0	10.7	16.6	11.0	17.4	4.8
일반손해보험	8.1	-0.3	8.3	1.8	8.5	3.0	8.9	4.2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나. 장기손해보험

- 2016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위축되어 전년대비 2.3%p 하락한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상해·질병보험은 해지율 안정화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간병 보험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1.8% 증가가 예상됨.
 - 높은 가입률¹⁵⁾과 예정이율 인하¹⁶⁾ 등으로 성장률은 체감하고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¹⁷⁾ 성장여력 약화 등으로 전년대비 19.9% 감소가 예상됨.
 -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¹⁸⁾로 인해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신계약 판매가 위축됨.
 - 또한 2015년 이후 저축성보험에 대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공격적 영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5) 최근의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발생이 예상됨.

16)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상품을 기획할 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을 말함. 보험료가 인상되면 높아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신규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나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유입되는 보험료 규모 자체는 커질 수 있으며,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이러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함.

17)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 6월(2.5%), 2016년 11월(2.2%).

18) 2016년 6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조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

■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2016년 대비 소폭(0.3%p) 상승한 2.9% 증가가 전망됨.

○ 장기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0.0%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예정이율 인하 등이 신규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 고령화에 따른 높은 의료수요와 가입대상 확대,¹⁹⁾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 니즈 변화,²⁰⁾ 보험료 현실화 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22.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노후 소득 보장 수요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도 존재하나,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저축여력 감소, 저금리 리스크 확대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예상에 따른 보험회사의 판매 부담 및 소비자 니즈 충족 곤란²¹⁾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²²⁾ 등의 제도 변화와 보험회사의 보장성 상품 중심 판매 정책으로 저축성보험의 매출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은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손해보험 회사의 적극적 판매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전년 대비 각각 6.5%와 4.7%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19) 최근 유병자나 고연령 등 기존 거절체의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외에도 보험 회사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 보장니즈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0) 경기침체에 따라 사망 중심의 보험에서 생존·건강 중심의 보험으로 소비자의 니즈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1)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현재 판매 중인 저축성 상품을 가지고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임.

22) 평균공시이율 기준 납입기간 완료 시점(최대 7년)에 환급률 100% 이상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함(2017년 1월 시행)에 따라 사업비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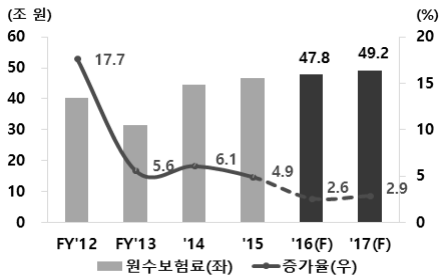
〈표 I-4〉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44.4	6.1	46.6	4.9	47.8	2.6	49.2	2.9
상해 및 질병	21.3	14.3	24.3	14.0	27.2	11.8	29.9	10.0
저축성보험	11.8	-2.4	10.5	-11.0	8.4	-19.9	6.5	-22.5
기타	11.3	1.5	11.8	4.2	12.2	3.8	12.8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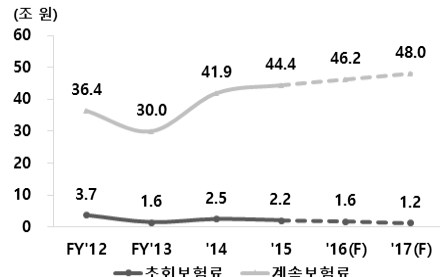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그림 I-20〉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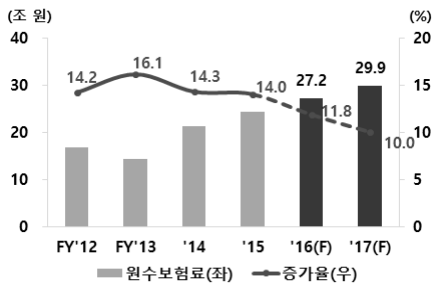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21〉 초회·계속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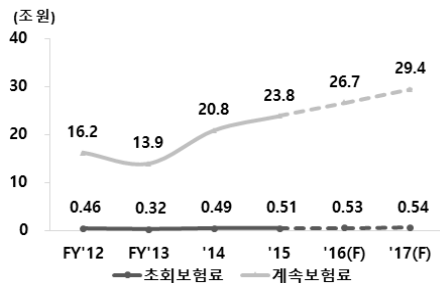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22〉 질병 및 상해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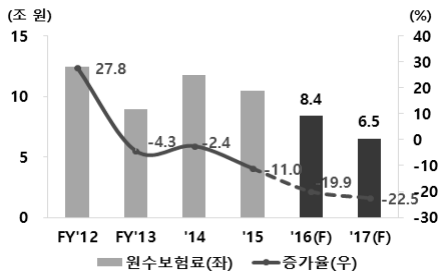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23〉 초회·계속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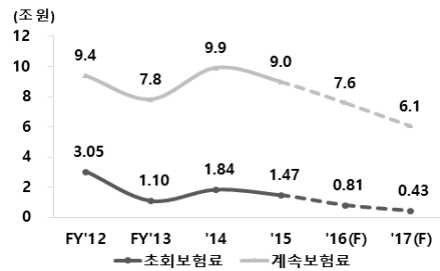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24〉 저축성보험 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25〉 초회·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연금부문

- 2016년 연금부문은 저금리 기조 속에 개인연금의 신규 수요 위축 및 퇴직연금의 공급측 하방압력에 따른 성장 정체로 인해 1.0% 감소가 예상되며,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1.1% 감소가 예상된다.

〈표 I -5〉 연금부문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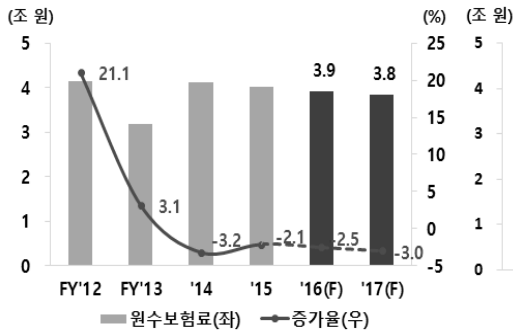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연금 부문	10.5	34.2	10.4	-0.9	10.3	-1.0	10.2	-1.1
개인연금	4.1	-3.2	4.0	-2.1	3.9	-2.5	3.8	-3.0
퇴직연금	6.4	78.8	6.4	-0.1	6.4	0.0	6.4	0.0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 2016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여력 약화로 2.5% 감소가 예상된다.
 - 2012년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여력이 약화됨.
 - 저금리 기조 속에 개인연금계좌 시행²³⁾으로 금융권 간 경쟁이 가열됨.
- 2017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여력 약화로 전년대비 3.0% 감소가 전망됨.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른 고객니즈 증가에도 불구하고,
 - 계속된 저성장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된 데다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과 금융권 간 경쟁심화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공시이율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비자 구매 동기가 저하되어 있고, 저축성 상품 설계기준 변경 (2017. 1)으로 회사의 판매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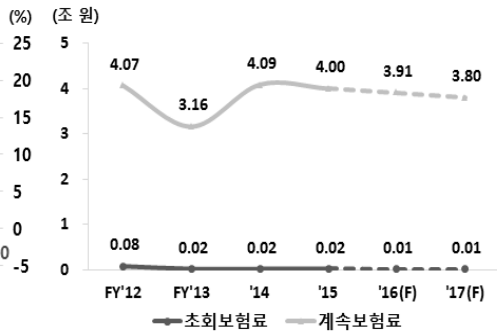
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5. 31) 참조.

〈그림 I-26〉 개인연금 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27〉 초회·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보험그룹의 계열사 매각 및 구조 조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부담,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으로 성장이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노후소득예의 대비 및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임금피크제·성과급제 도입²⁴⁾ 등으로 고성장이 예상됨.

■ 2017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또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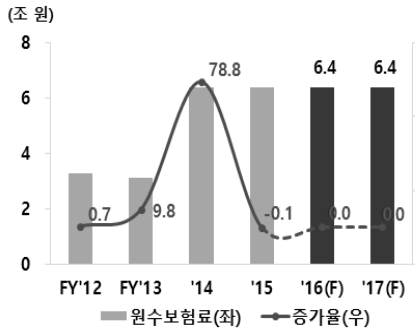
○ 은퇴시장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임금피크제·성과급제 도입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보험회사의 주요 시장인 대기업 퇴직연금 가입의 포화수준 도달,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전략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경기침체 지속 및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한 신규가입 수요 부족, 은행과 증권회사의 실적배당형 DC형 시장 확대,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전략 등이 퇴직연금의 성장저해요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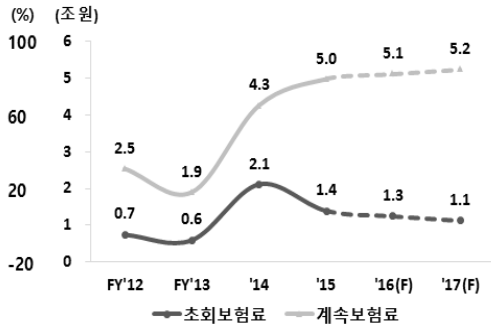
24)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제 도입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퇴직연금(특히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이 예상됨.

〈그림 I-28〉 퇴직연금 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29〉 초회·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자동차보험

- 2016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²⁵⁾ 보험요율 인상, 물담보 보장확대수요 증가세로 인해 전년대비 11.0%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손해보험회사들은 2014년에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도 보험요율을 꾸준히 인상한 바, 기본보험료 인상이 전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2.4%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됨.
 - 물담보 보장확대수요 증가는 외산차 가입 증가, 대물배상 가입금액 고액화, 자기차량담보 가입 증가 등에 기인함.
 - 한편, 온라인자동차보험 가입 확대, 마일리지 및 블랙박스 특약 가입 확대 등 대당 보험료의 감소 요인도 존재함.
 - 특히, 2015년 말 인터넷 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의 등장으로 온라인 판매 증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25) 2016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른 신차 구매 확대 등.

- 2017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또한 차량대수 증가세,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 요율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료 증가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은 차량대수 증가 3.9%, 고액자동차 증가 0.3%, 요율 인상 효과 0.5%, 기타 0.2%로 추정됨.
- 한편,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하 효과는 크게 감소하여 0.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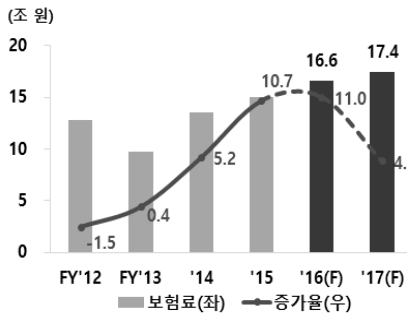
〈표 I-6〉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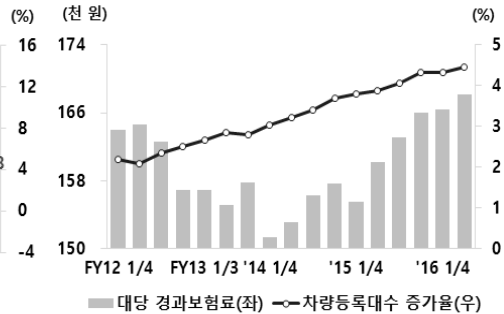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보험	13.5	5.2	15.0	10.7	16.6	11.0	17.4	4.8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그림 I-30〉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그림 I-31〉 차량대수 및 대당보험료 증가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보험개발원; 국토해양부.

마. 일반손해보험

- 2016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년대비 3.0% 증가가 예상됨.
- 화재보험은 신규수요 창출의 어려움, 손해율 안정에 따른 요율 인하, 장기 또는 종합보험으로의 물건 이탈²⁶⁾ 등으로 1.0% 감소가 예상됨.

- 해상보험은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조선·해운업 침체로 인해 14.7% 감소가 예상됨.
- 보증보험은 국내 건설수주 호조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금반환보증 보험 수요 증가²⁷⁾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전년대비 0.7% 감소가 예상됨.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의무가입 종목 증가에 힘입어 6.5%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전년에 이어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 변화²⁸⁾ 등으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낮은 손해율로 인한 요율 인하, 해외로의 공장 소재 이전, 그리고 타 보험종목으로의 이탈 지속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해상보험은 세계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교역량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 해상보험시장의 경쟁 지속, 보험요율 인하 등에 따라 17.5% 감소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신용보험 시장 확대 및 건축허가 증가에 따른 보증 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과 건설투자가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²⁹⁾됨에 따라 1.2% 감소가 전망됨.
- 특종보험은 특히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어 8.0% 증가가 전망됨.

26)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장기재물 및 통합형보험 등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들이 영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이들 종목으로 분산되고 있음.

27) 파이낸셜 뉴스(2016. 3. 16), “‘강통전세 위험 줄이자’ 보증보험 가입 작년 比 90%↑”.

28)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2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11. 2),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 배상책임보험 가입의식 변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확대,³⁰⁾ 드론 등의 신시장 확대, 단체상해보험 및 해외여행보험 시장 확대 등이 증가 요인일 것으로 보임.
- 한편, 기업성 보험 가격자유화 시행³¹⁾으로 인한 요율경쟁 심화, 민간 조립 및 건설공사 감소 추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표 I -7〉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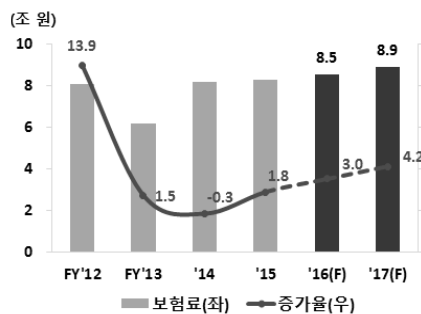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종목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8.1	-0.3	8.3	1.8	8.5	3.0	8.9	4.2
화재보험	0.3	-3.6	0.3	-2.1	0.3	-1.0	0.3	0.0
해상보험	0.7	-2.2	0.7	-3.4	0.6	-14.7	0.5	-17.5
보증보험	1.5	-0.6	1.6	4.4	1.6	-0.7	1.6	-1.2
특종보험	5.6	0.3	5.7	2.0	6.1	6.5	6.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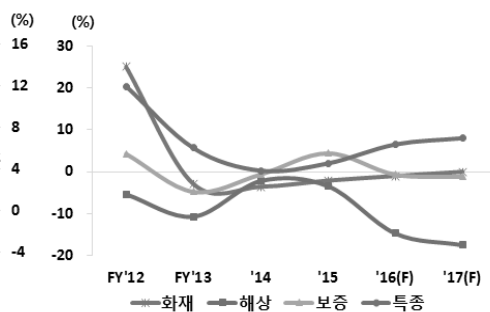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그림 I -32〉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그림 I -33〉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0) 체육시설, 환경오염배상, 개인정보유출, 재난보험 등.

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 7), “기업성 보험 가격결정 자율성 확대 … 경쟁 촉진”.

Ⅱ. 전망 근거

1. 고령화

- 한국은 저출산과 더불어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³²⁾ 2026년에 초고령사회³³⁾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년부양비³⁴⁾는 2016년 18.5명에서 2020년 22.1명, 2040년에는 57.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데, 우선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고령자 의료비보장 필요성 증가로 이어져 보험수요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음.³⁵⁾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은퇴기간의 장기화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및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 또한 사망 시까지 의료비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비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 한편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³⁶⁾가 감소할 경우 보험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32)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33)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34)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하는 노년 인구의 수.

35) 반면, 유가족 생활보장을 위한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6) 생산가능연령인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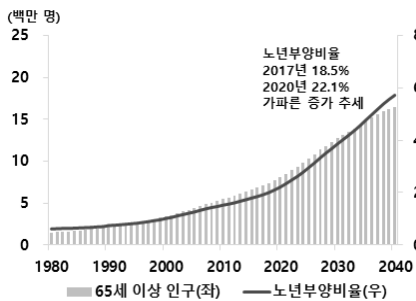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여 2040년에는 2,8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대여명 증가³⁷⁾로 과거 연금상품 설계 시 예상했던 예정 사망률과 실제사망률 간 차이가 커짐에 따라 장수위험³⁸⁾에의 노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종신연금상품의 경우 사망률 개선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즉, 종신연금상품을 제공한 보험회사의 경우 예상보다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해 장수위험에 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추가 자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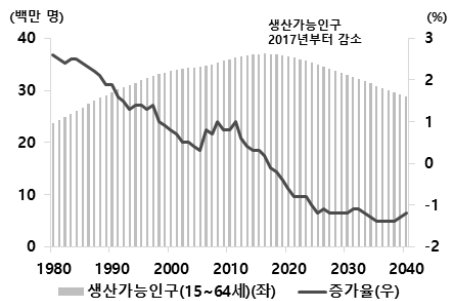
〈그림 II-1〉 고령화 추이: 노년부양비율



주: 노년부양비율 = $\frac{65\text{세 이상 인구}}{\text{생산가능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자료: 통계청.

〈그림 II-2〉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료: 통계청.

37) 1980년 대비 2014년 연령별 기대여명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음.

구분		기대여명(세)		개선 연령(세)
		1980년	2014년	
전체	0세	65.7	82.4	16.7
	65세	12.9	20.9	8.0
남성	0세	61.8	79.0	17.2
	65세	10.5	18.3	7.8
여성	0세	70.0	85.5	15.4
	65세	15.1	22.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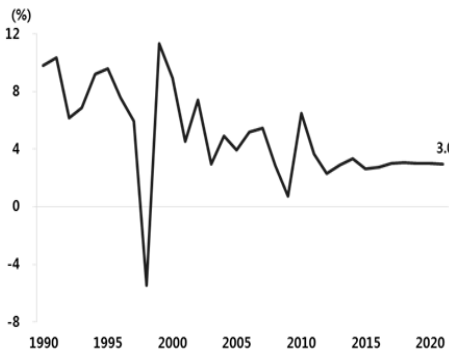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간이생명표.

38)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예상수명보다 실제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연금지급액이 예상했던 연금지급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정의됨(김대환 외(2012),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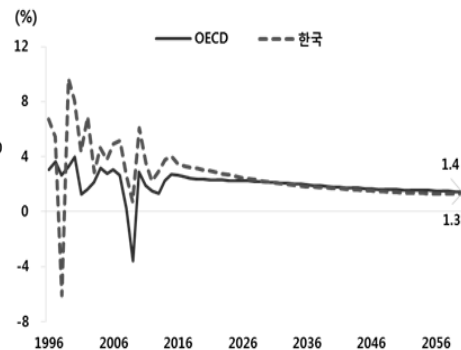
2. 저성장

- 국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고령화 진전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통화기금 IMF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0년 3.0% 수준을 보일 것임(〈그림 II-3〉 참조).
 -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3.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OECD는 2060년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이 1.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그림 II-4〉 참조).
 - 2035년부터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은 1.0%대를 유지하며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은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기인함.
 -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경제 생산과 소비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그림 II-3〉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그림 II-4〉 잠재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EO Update(2016, 10).



자료: OECD(2014, 5), Economic Outlook No 95.

■ 향후 보험침투도 증가율이 일정할 경우, 저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보험료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침투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것임.³⁹⁾

○ 보험침투도는 2014년 이후 12%대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로 보험료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II-1〉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3)}	2014	2015	2016(F) ⁴⁾
생명보험	8.3	7.1	7.4	7.5	7.6
손해보험	4.9	4.9	5.2	5.1	5.1
전체	13.3	12.0	12.6	12.7	12.8

주: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 FY2013부터는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4)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 세계경제는 양분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표 II-2〉참조).

○ 세계경제는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와 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유로지역 및 중국에 의해 양분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 0.6%p 성장한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한 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유로지역과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대비 각각 0.2%p, 0.4%p 하락한 1.5%,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2017년 세계 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하게 회복되어 2016년 보다 0.3%p 상승한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39) 보험료 증가율 = 보험침투도 증가율 + 경제성장률,
경 제 성 장 륜 = 노동증가율 + 자본증가율 + 기술진보

- 선진국 경제는 2016년 대비 0.2%p 상승한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흥국 경제는 전년대비 0.4%p 상승한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2〉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구분	2015	2016(F)	2017(F)
세계 경제	3.1	3.1	3.4
선진국	1.9	1.6	1.8
신흥국	4.0	4.2	4.6
미국	2.4	1.6	2.2
유로지역	1.7	1.7	1.5
일본	0.5	0.5	0.6
중국	6.9	6.6	6.2
한국	2.6	2.7	3.0

자료: IMF(2016, 10),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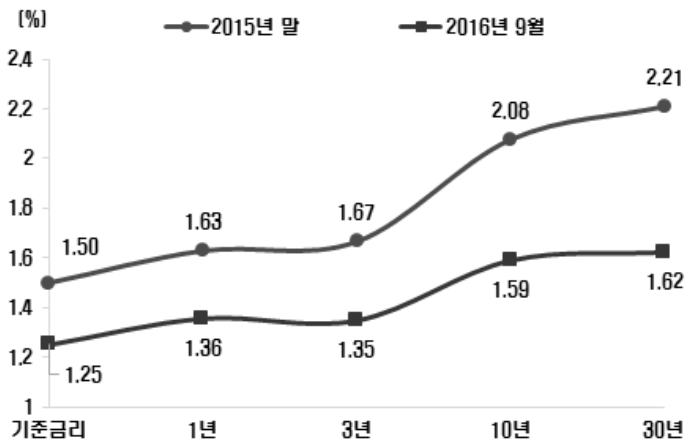
■ 한편 세계경제는 미국대선 이후 자본건전성 강화,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중국의 경제 둔화 및 과다부채 등을 포함한 위험요인들이 잠복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금융권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자본금 요건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 자산운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중심의 인구 고령화 진전으로 글로벌 노동생산성이 중장기적으로 둔화 되면서 세계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 등 금융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경제가 수출주도형경제에서 내수중심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및 수출이 위축되면서 금융권의 부실화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음.
 - 중국 금융권은 과다 기업부채(기업부채비율이 GDP 대비 150% 내외)에 노출되어 있어 금융 불안이 잠복되어 있음.

3. 저금리

-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에 영향을 주어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대였던 실질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로 추정됨.
- 금융기관들의 자본규제 강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국내 수요가 급등하며,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5〉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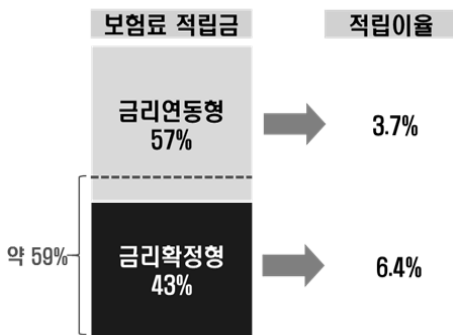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저금리에 따른 금리역마진 위험이 커지면서 적립이율대비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판매가 활발했던 확정고금리상품 및 금리연동형상품(높은 최저보증이율)이 위험요인임.
 -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하락하고 있음.
 - 2015년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직전 1년간 운용자산이익률은 4.3%로 2014년 12월 말 기준인 4.4%보다 0.1%p 하락함.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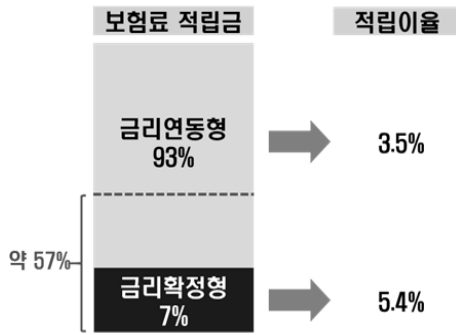
-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력이 약화됨.
 - IFRS17 도입으로 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부채로 편입되며,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짐.
 - 저금리 상황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부채 시가평가는 보험회사에 큰 부담이 되며, 향후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립금 부담도 증가함.

〈그림 II-6〉 생명보험 적립이율



주: 2015년 6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그림 II-7〉 손해보험 적립이율



주: 2015년 6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4. 금융규제 변화

- 최근 금융규제환경 변화로 보험료 수입 확대와 수익 창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규제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영업 전략 변화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함.
- 보험수요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금융규제환경 변화에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예정, 소비자보호 강화,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가 있음.

4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9. 8), “2015. 6월 말 보험회사 투자부문 금리차 및 손익현황”.

〈그림 II-8〉 금융규제환경의 변화와 영향

규제변화	영향
IFRS4 2단계 (2021년 예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및 손익(수익-비용) 인식변화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시기 미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 요구자본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규제 완화	상품 및 가격자유화, 자산운용 자율화

■ IFRS17 도입(현재 2021년 도입 예정)으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방법과 손익(수익-비용) 인식 체계가 변경될 것임.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하락(상승)하면 보험부채의 가치가 상승(하락)하게 됨.

– 특히, 과거 보험회사들이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경우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 규모가 원가로 평가된 보험부채 규모보다 현저히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손익(수익-비용)인식 체계가 해당 기간에 제공된 보장위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대부분이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임.⁴¹⁾

○ 다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원(IASB)의 전환 규정⁴²⁾ 완화 결정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우려가 소폭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⁴³⁾

– 그러나 저금리 환경에서 제기되는 보험부채 증가 우려는 계약서비스마진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우려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님.

41) IFRS17에서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투자부문의 보험료는 수입으로 인식하지 못함.

42) 기존 회계제도를 새로운 회계제도로 전환하는 방법과 관련한 규정을 의미함.

43) 기존 계약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측정 시 완전소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완전소급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간편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도록 함(IASB Meeting 2016, 11.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과거 높은 이익률을 적용하는 소급법보다 계약서비스마진(부채 항목)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음.

-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시행시기 미정)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신지급여력제도의 핵심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데 있음.
 - 저금리 환경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회계상 보험부채 규모를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확대시킬 것임.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개선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음.
 -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불합리한 영업행위 개선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먼저 유도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⁴⁴⁾
 - － 변액보험과 관련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사전진단 및 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 공시확대, 판매자의 교육 강화 등⁴⁵⁾
 - － 간편심사보험⁴⁶⁾ 계약인수 시 심사관행 개선과 건강한 사람의 가입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강화 등⁴⁷⁾
 -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상품비교설명제도 등과 같은 업무기준 강화⁴⁸⁾
 - 소비자보호 강화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불합리한 영업 행위가 개선되는 동안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신규 판매 확대가 어려울 수 있음.

-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상품 가격 및 개발의 자율성 제고와 자산운용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음.⁴⁹⁾

44) 금감원 보도자료(2016. 9. 20) 참조.

45) 금감원 보도자료(2016. 6. 21) 참조.

46)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을 말함.

47) 금감원 보도자료(2016. 8. 4) 참조.

48) 금감원 보도자료(2016. 9.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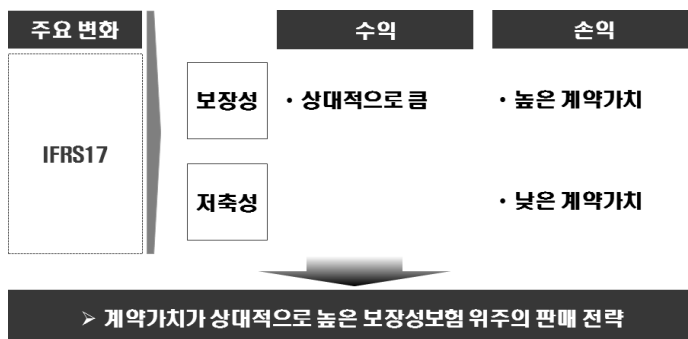
- 보험상품 신고제도 간소화, 표준약관제도 정비, 위험률 안전할증 자율성 확대,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한도 규제를 현 직접한도 규제에서 간접규제 한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외국환, 파생상품, 해외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5. 보험영업 전략

■ 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영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그림 II-9〉참조).

- IFRS17하에서는 보장성보험 상품은 저축성보험 상품에 비해 손익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가치를 갖고 있음.
 - 내재가치(EV) 마진율로 볼 때 보장성보험 상품은 20~30%, 저축성보험 상품은 10% 이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일부(보장성)만이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보험수익으로 인식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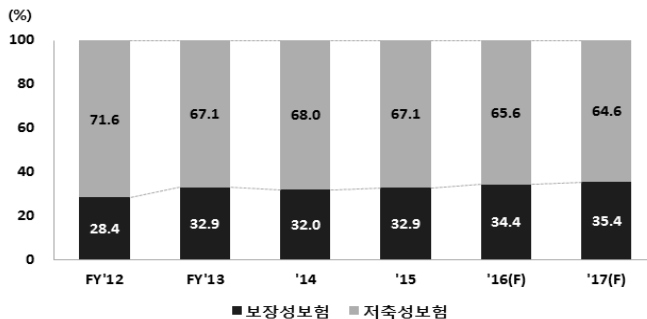
〈그림 II-9〉 보장성보험 위주의 영업전략



4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16) 참조.

-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와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저축성 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은 증가함.
 -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보험 상품의 최저보증이율 하락은 수요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연금보험의 경우 장수리스크와 금리리스크의 개선 여지가 크지 않아 건전성 규제 강화 시 더 많은 자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며,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연금보험 판매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각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제도 변화⁵⁰⁾로 인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나,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변동성 축소를 위해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임.
 - 보험회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저축성보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의 신상품 개발 및 신규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음.
 - 그 결과, 생명보험회사 보장성보험 비중은 FY2012 28.4%에서 2017년 35.4%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10〉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비중



주: 1) '16(F)와 '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저축성보험에는 퇴직연금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0)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를 의미함.

Ⅲ. 경영과제

1. 경영목표 재정립

가. 경영과제

- 보험회사는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녹록지 않은 규제변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의 1%대 안착과 저금리의 장기화 영향으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여지가 있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함.
 - 이와 더불어 보험부채 시가평가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건전성 규제 강화도 예정되어 있어 예전과는 판이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음.
- 보험업은 장기에 걸쳐 손익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먼저 경영목표를 현재 단기손익 중심에서 장기손익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수입보험료) 확대와 회계상 이익 극대화라는 단기손익 중심의 기존 경영목표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
 - 이보다는 장기사업의 특징을 갖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손익을 중시하는 경영목표로 재정립되어야 함.
- 장기손익 중심의 경영목표를 토대로 경영자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체계(incentive structure)도 장기손익과 연동할 필요가 있음.
 - 경영자 성과측정을 기업가치의 기여도로 측정함으로써 주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킬 수 있음.

- 경영진의 성과평가 결과를 연간 보너스 및 장기 인센티브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영자의 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
- 경영자의 성과평가, 보수체계를 장기손익 목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경영시스템을 일대 혁신하여 회사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음.

나. 고려사항

-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자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용한 지표로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를 활용할 수 있음.
 - 보험회사 성과평가지표의 하나인 EV는 순자산가치와 보유계약가치의 합으로 구성됨.
 - $EV = \text{순자산가치} + \text{보유계약가치}$
 - 순자산가치(ANW: Adjusted Net Worth)란 회계상 자본에 보험업 특성을 고려한 조정항목을 감산한 것임.
 - 예) 시가평가 미만영 자산을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차액으로 부동산, 지분법 대상이 되는 비상장 주식, 만기보유증권 등이 이에 해당함.
 - 보유계약가치(VIF: Value of In-Force)란 보유계약의 장래 실현예정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된 값에서 자본의 기회비용을 차감한 값임.
 - $\text{보유계약가치} = \text{미래 손익현가} - \text{자본비용}$
- 경영성과는 경영진의 노력에 의한 EV 증가분(=기말 EV-기초 EV)에 의해 측정되고,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계된 경영진의 보상체계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함.
 - 경영진 성과평가를 신계약가치와 보험초과 성과에 의한 EV 증가분으로 측정될 수 있음.
 - 신계약가치란 신계약 미래손익의 현재가치를 말함.
 - 보험초과 성과란 경영효율 개선에 따라 예상손익을 초과하는 성과를 의미함.

- EV 증가분으로 평가된 경영진 성과를 경영진 보상체계에 연계시킬 때 핵심기능 중심으로 역량 집중이 가능함.

2. 금리위험 관리: de-risking 전략

가. 경영과제

- 현재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 우려로 저축성보험의 상품공급이 위축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저금리는 운용자산이익률이 보유계약에 대한 부담이율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마진을 초래함.
 - 저금리 기조의 심화는 신계약에 대한 금리 역마진 위험을 키워 저축성보험의 상품공급을 위축시킴.
- 그러나 노후소득보장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년부양비율이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료비 증가도 노후소득보장 니즈를 키우는 요인임.
- 따라서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과 등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최저이율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저이율보증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최저보증이율은 1%대이나 저축성보험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저 보증이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음.

나. 고려사항

- 보험회사는 최저보증이율 보장에 따른 금리위험을 파생상품 활용 등을 통해 헤지할 필요가 있음.
- 최저보증이율 보증수수료 부과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저축성 상품의 부리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이율인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음.

3. 자본구조 관리

가. 경영과제

-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가용자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IFRS17 도입에 맞추어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신지급여력제도 가용자본 산출 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므로 금리 하락 시 부채가치의 증가가 자산가치의 증가보다 커 가용자본 감소함.
 -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서는 가용자본 산출 시 일부 자산(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만 시가평가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원가평가함.
 - 2016년 말 현재 자본 중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27.8조이며 부채시가 평가 시 부채가치 증가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금리하락에 의한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말함.
 - 현재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길고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준비금 비중이 40% 이상임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로 인한 부채가치 증가는 자산가치 증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의 자본확충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음.
 - 회사의 자본확충은 내부이익유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외부적으로는 유상증자, 후순위채발행 등 자본조달을 통해 이루어짐.
 - 현재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는 일부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확충은 제한적임.
 - 최근 상장 생보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0.7 수준으로 매우 낮아 유상증자에 불리한 환경임.
 - 신종자본증권은 국내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후순위채도 수요 부족으로 높은 조달 비용이 필요함.
 - 국내에서 신종자본증권은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도 발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자본회소성에 직면한 보험회사는 가용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

나. 고려사항

- 가용자본의 부족분은 할인율, 가용자본의 인정범위, 요구자본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됨.
 - 할인율의 하락은 부채가치 증가로 이어져 가용자본을 감소시킴.
 - 가용자본의 부족분은 장래이익의 인정 수준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요구자본의 크기에 따라 최소 가용자본 수준이 결정되므로 요구자본 산출 기준에 따라 가용자본 부족분이 결정됨.
 -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따라서 향후 할인율, 가용자본 인정범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요구자본 관리 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본을 최적화해야 함.

4. 자산운용

가. 부채연계투자전략(LDI)

1) 경영과제

- 뉴 노멀 시대에서는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금리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수익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전략이 요구됨.
 - ‘뉴 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일반화’를 뜻하는 용어로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라는 거시경제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정보통신 발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 사회·제도적인 요인들까지 포함함.
 -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 판매 및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부채적립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은 이차역마진이 발생함.
 - 또한, 국내 장기자산 부채로 인해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커서 높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부채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중시하되 수익성을 제고하는 부채 연계 투자전략(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2) 고려사항

- LDI 체계의 핵심은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체제를 토대로 목표 스프레드(target spread)를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음.
- ALM 체계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가치 창출로서의 준비금 관리 수단을 의미하는데, 보험부채의 재무위험(특히, 금리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보험부채는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형 구조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duration) · 컨벡시티(convexity) 등을 통해 금리 변화에 따른 보험부채 가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여기서는 보험부채) 가치 변화 중 선형적 영향을 의미하며, 컨벡시티는 그 외 비선형적 영향을 의미함.
- 이러한 보험부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노출된 금리위험을 최소화 하는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 반면, 목표 스프레드의 수준은 대주주의 위험인수 성향과 자본금 수준에 의해 결정됨.

- 목표 스프레드 설정은 주주를 위한 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자산운용이라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위험인수 성향이 높을수록 또한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보다 고위험 · 고수익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나. 해외투자전략

1) 경영과제

- 보험회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미 일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현행 30% 한도에 육박한 상태임.
- 일부 선진국의 장기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현상⁵¹⁾과 다양한 투자대상 존재로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총자산의 30%인 해외투자 한도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규제적으로 제약이 없게 됨.

51) 한 예로 국제 30년물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70bp 가량 높은 상황임.

- 보험회사는 과거와 다르게 KP(Korean Paper)⁵²⁾ 이외의 외화채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

- 과거 해외투자는 KP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장기 국채와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고려사항

- 보험회사는 다양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 해외투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sov​er​eign risk), 신용위험, 환위험 등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와 양을 증가시키므로, 보험회사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과거 KP 중심의 해외투자는 이러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작았음.

-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시장·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연구,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보험회사는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함.

- 보험회사는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헤지비용과 헤지만기를 조절함으로써 수익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대만 보험회사들은 헤지비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수익 제고 및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으며,⁵³⁾ 최근 국민연금도 2018년까지 해외채권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0%로 낮추기로 했음.

52)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달러표시 채권임.

53) 일본과 대만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환헤지와 관련해서는 동부증권의 두 보고서를 참조; 문홍철(2015. 2. 11), “대만의 해외투자 환경 답사기”; 문홍철(2015. 12. 7), “일본출장가: 모습을 바꿔 성장한 일본의 FI산업”.

- 단, 대만이 비교적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상황이긴 하지만 환율제도가 다르며,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도 높아 해외 포트폴리오 차원의 환위험 관리가 일부 가능함.
- 국내 보험회사의 환헤지 전략과 리스크, 투자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5. 신수익원 창출

가. 수수료 확대

1) 경영과제

-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저축성보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보험수요 약화, 수익감소가 전망됨.
 -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보장성보험 중 특히 보험료 높은 종신보험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수요위축이 우려됨.
 -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공시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공시이율형 저축성보험의 수익성 악화로 저축성보험 수요에 악영향을 미침.
- 보험회사는 수익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수수료 수익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의 확보는 저금리로 인한 수요둔화, 이차역마진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됨.
 - 특히 시가평가 국제회계제도 도입, 지급여력제도 강화 등의 제도적 변화는 장기 보험상품의 자본 부담을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상품 판매 방식과는 다르게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부유층 등에 대한 유료투자자문 사업 도입을 통한 자문 수수료 확보가 가능할 것임.

-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전속설계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보험상품이 종신,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 연금, 변액보험 등의 다양한 저축상품을 제공하므로 금융투자상품, 예금상품을 추가한 종합적 투자자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질 수 있음.
- 특히 보험회사의 비과세 상품은 절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유층의 투자자문에 중요한 상품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후취형 변액상품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수수료 확대도 필요함.

- 후취형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잘하는 경우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금융투자 상품이 대부분 후취형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후취형 변액보험 활성화는 금융투자 수요를 변액보험으로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고려사항

■ 보험회사가 유료투자자문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지원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임.

- 생명보험회사가 유료투자자문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이미 유료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업권의 존재가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지원이 절실함.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무료라는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회사는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후취형 변액보험은 조기 해지 발생 시 사업비 미회수 위험이 존재하며 생명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 관리 능력의 제고가 요구됨.
 - 후취형 변액 저축성보험의 경우 초기 투입되는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조기 해지하는 경우 사업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조기 해지 위험에 대비하여 해약 패널티 모형 등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 또한 후취형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수수료 수입의 확대를 위해 특별계정 자산 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할 것임.

나. 중고자동차 수리비보상보험

1) 경영과제

-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5년 기준 367만 대로, 신차 거래량의 2배에 달하는 큰 시장임.
-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천km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판매자와 구입자 간 충돌이 빈번함.

- 중고차 매매업체가 개인 중고차 판매자 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중고차 판매자의 수리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리비보상보험은 자동차 인도 후 주행거리가 2천km를 초과하지 않거나 인도 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고장에 대해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함.
- 또한 원동기 및 변속기 등 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는 성능상태 점검에 오류 및 허위가 없는 경우에도 불량품 판매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려사항

- 중고차 판매자의 수리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성능상태 점검업체를 지정하는 방안이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보험회사는 성능점검 결과를 언더라이팅에 활용하는데, 중고차 판매업자가 성능점검업자를 지정하는 현행 구조하에서는 부실 성능점검 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

6. 판매채널 관리

가. 경영과제

- 최근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주도했던 전속채널 위주의 판매채널 환경이 다변화 하면서 비전속채널이 점차 확대되고 제판(製販)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보험시장의 양적 성장과 판매채널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보험설계사 정착률과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고 보험 소비자로부터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 기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정착률은 36.6%,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정착률은 34.8%로 나타남.
- 2015년 2/4분기 기준 13회 차 계약 유지율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81.7%,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81.3%로 나타남.

■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속과 비전속 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채널전략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수요층의 니즈 변화와 채널 간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향후 전속 설계사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전속 설계사 조직의 고능률화가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정부가 영국식 독립자문업자(IFA)의 도입을 발표하는 등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예견되는 만큼 고능률 설계사 양성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전속 채널의 경우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향후 높은 성장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규제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및 기타 비대면 채널 등과 융합된 채널 포트폴리오 확립이 필요함.

- IT기술 발달과 저가 상품 니즈 증가로 인해 향후 인터넷 채널의 성장성이 예견되는 만큼 비전속 채널과 인터넷 채널을 병행하는 보완적 채널믹스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고려사항

■ 보험회사들은 향후 채널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C-P-C(Customer-Product-Channel) 전략에 따라 고객과 주력상품 및 해당 채널 간의 유기적 연관성과 특성화된 고객 군별 맞춤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음.

- 전속 채널은 향후 자문기능 강화를 통해 고액 자산가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형 상품이나 상속 관련 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비전속 채널은 매스 마켓(Mass Market)을 대상으로 중산층 고객들의 생애 주기를 감안한 맞춤형 생명보험, 연금 상품 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TM(Telemarketing) 등 비대면 채널은 가격에 민감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가격비교 기능강화와 구매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저가형 상품시장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부 록

〈부록 표 1〉 퇴직연금 제외 시 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전체 보험산업	169.0	0.8	177.4	5.0	182.0	2.6	185.6	2.0
생명보험	98.8	-1.7	103.5	4.8	105.1	1.6	106.3	1.1
손해보험	70.2	4.5	73.9	5.2	76.9	4.1	79.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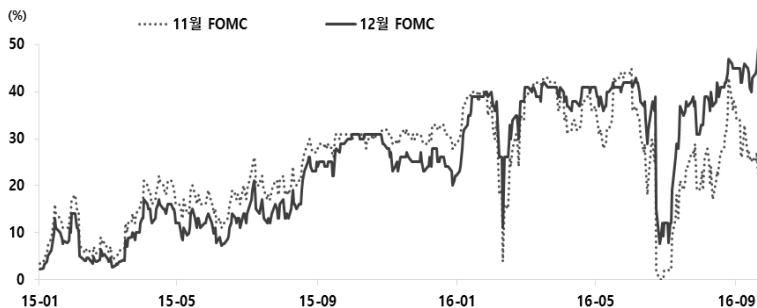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 퇴직연금을 제외한 2016년 보험산업 보험료 수익은 2.6% 성장이 예상되며 2017년에는 2.0% 성장이 전망됨.

○ 퇴직연금 제외 시 2016년 생명보험은 1.6%, 손해보험은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제외 시 2017년 생명보험은 1.1%, 손해보험은 3.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부록 그림 1〉 미 Fed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자료: Bloomberg.

〈부록 표 2〉 주요기관 환율 전망

발표기관	전망시점	환율
BNP Paribas	2016. 9. 12	1,200원
RBC Capital Markets	2016. 9. 9	1,280원
Wells Fargo	2016. 9. 9	1,140원
HSBC Holdings	2016. 9. 8	1,070원
Standard Chartered	2016. 9. 2	1,200원
Morgan Stanley	2016. 8. 24	1,250원
Kookmin Bank	2016. 9. 5	1,050원
최저		1,050원
최고		1,280원
평균		1,172원

〈부록 표 3〉 주요기관 경제성장 전망

년	발표기관 (전망시점)	성장률				경상 수지 (억 불)	수출 (통관, %)	수입 (통관, %)	소비자 물가 (%)	취업자 증감 (만 명)	실업률 (%)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2017	기획재정부('16. 6)	3.0	2.1	3.8	2.5	840	2.4	8.8	1.9	30	—
	국회예산정책처 ('15. 9)	3.2	2.6	4.6	2.0	886	4.8	6.7	1.6	34	3.4
	한국은행('16. 7)	2.9	2.2	3.2	3.0	800	2.0	5.5	1.9	31	3.7
	KDI('16. 5)	2.7	2.3	3.3	2.9	1,019	0.1	2.4	1.7	—	3.7
	IMF('16. 4)	3.0	—	—	—	1,019	—	—	2.2	—	3.3
	OECD('16. 6)	3.0	3.0	—	—	—	—	—	1.7	—	3.4
2016	기획재정부('16. 6)	2.8	2.2	0.3	5.6	980	-4.7	-6.0	1.1	30	—
	국회예산정책처 ('16. 5)	2.5	2.1	0.7	3.7	1,039	-5.6	-7.4	1.2	31	3.7
	한국은행('16. 7)	2.7	2.3	-2.1	6.7	950	-5.7	-7.5	1.1	29	3.8
	주요연구기관 ¹⁾ 평균	2.5	2.0	-1.7	4.6	1,038	-5.8	-8.0	1.2	27	3.8
	IMF('16. 4)	2.7	—	—	—	1,089	—	—	1.3	—	3.5
	OECD('16. 6)	2.7	2.5	—	—	—	—	—	1	—	3.5

주: 1) KDI, 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2016. 9), KOSTAT 경제동향.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
 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
 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정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정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점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운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
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
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
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
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향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임 준 환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pricing@kiri.or.kr)

조 용 운

The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wcho@kiri.or.kr)

이 승 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김 경 환

승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mail : khkim@kiri.or.kr)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inowon@kiri.or.kr)

정 인 영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essence4u@kiri.or.kr)

이 아 름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lar@kiri.or.kr)

이 해 랑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haerang@kiri.or.kr)

정책보고서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49-7 94320

979-11-85691-03-9 (세트)

정가 10,000원

